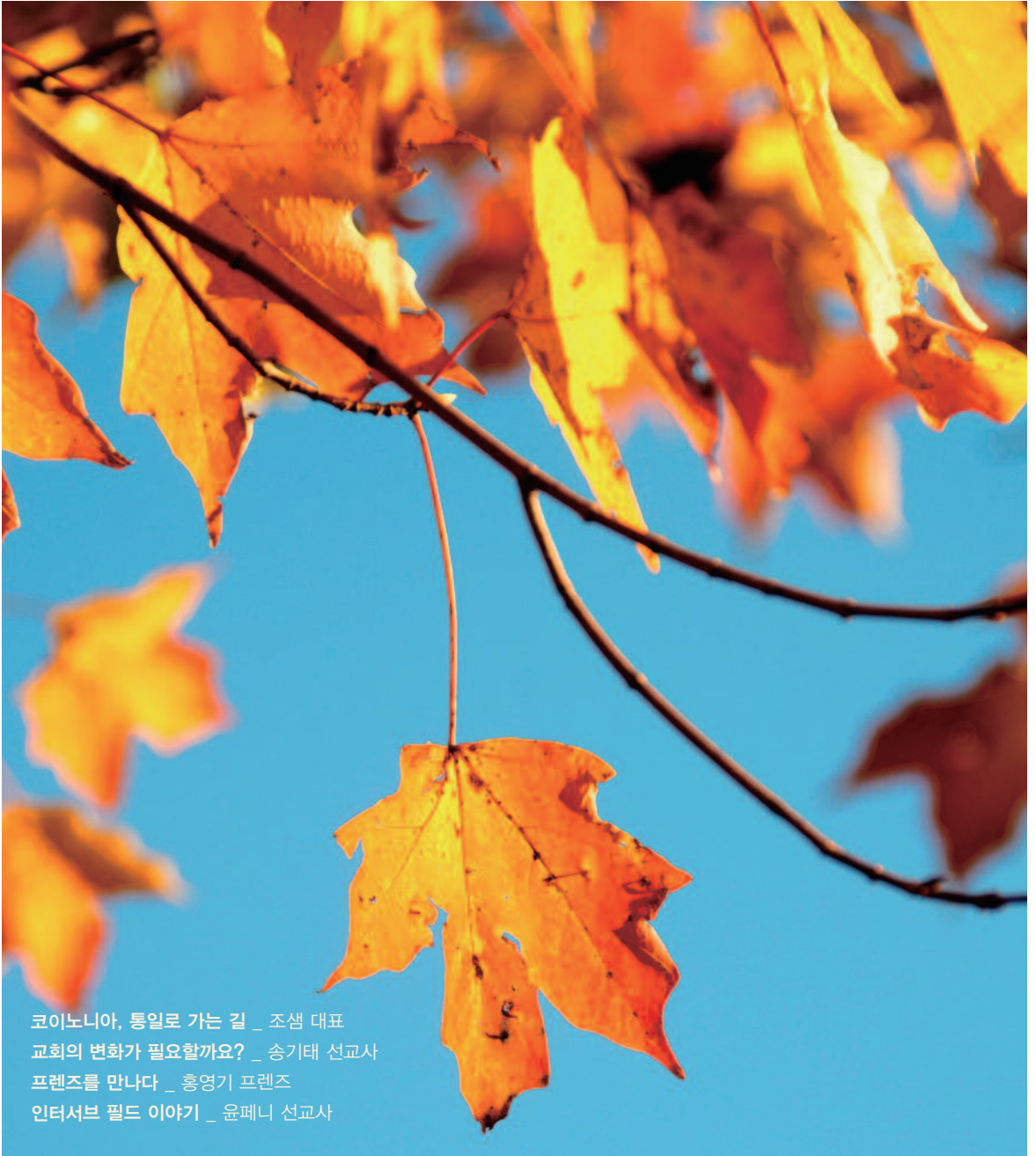


experience
Life As Mission

133th, Fall, 2019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 터 서 브 프렌즈



코이노니아, 통일로 가는 길 _ 조샘 대표
교회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_ 송기태 선교사
프렌즈를 만나다 _ 홍영기 프렌즈
인터서브 필드 이야기 _ 윤페니 선교사

리디아 컨퍼런스를 마치며...

이렇게 자주 이름이 불리운 적이 언제였던가요?
보냄 받은 곳에서 현지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문득 낯설어졌던 내 이름.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예쁜 캘리 글씨로 이름을 그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이름을 안다. 기억한다. 널 안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득히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코이노니아, 통일로 가는 길 _ 조샘 대표
- 08 교회의 변화가 필요한가? _ 송기태 부대표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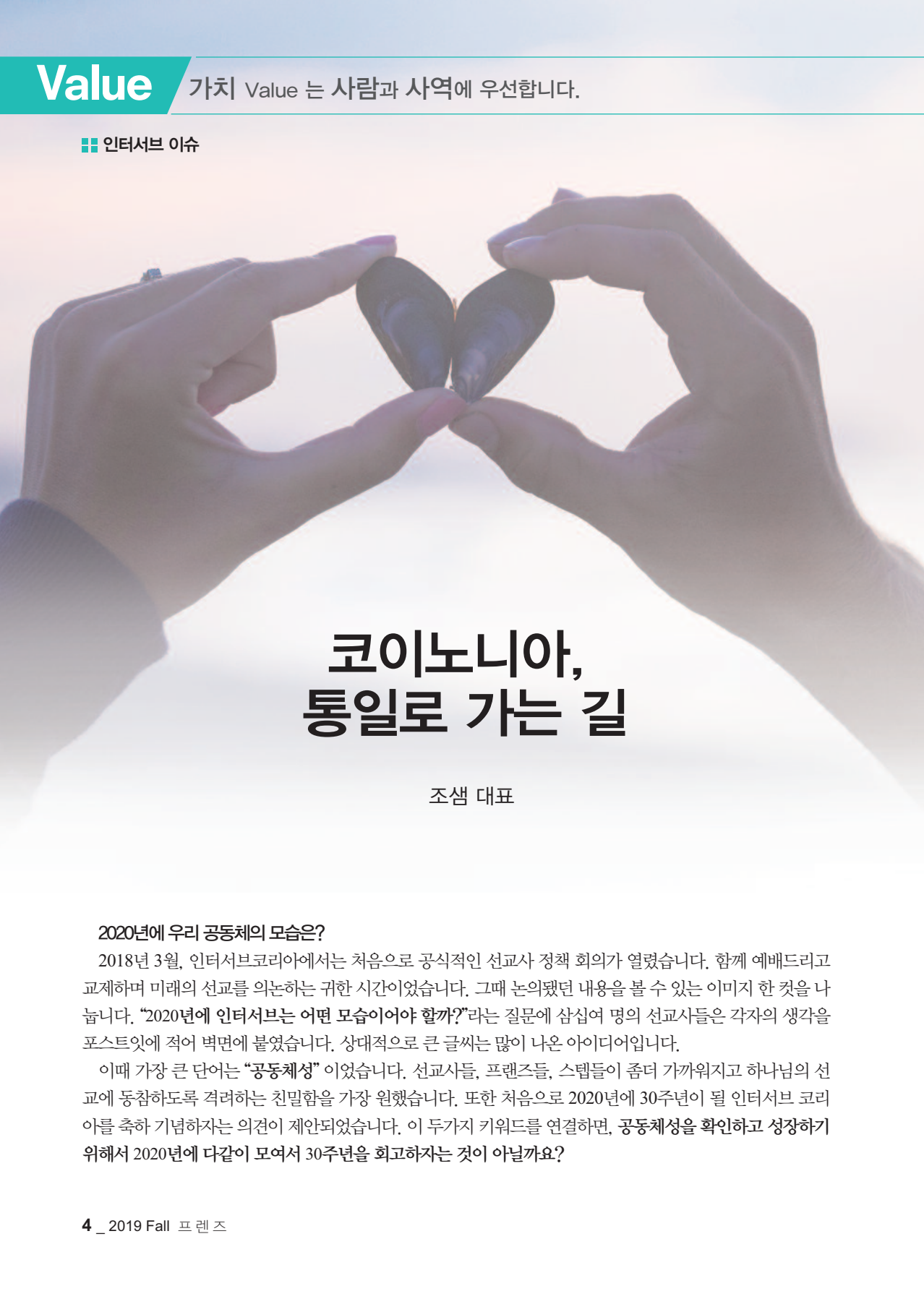
- 10 프렌즈를 만나다 _ 홍영기 프렌즈 (인터서브 멤버케어팀)
- 12 최초의 한국인 BMMF 선교사, 전재옥 _ 공갈렙 선교사
- 14 미션얼 패밀리 _ 김재민, 조혜정 선교사 가정
김신희, 이연수 선교사 가정 / 제이든, 송울 선교사 가정
허종규 선교사 / 박종성, 장소현 가정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8 인터서브 필드 _ 미얀마(버마)
- 20 밍글라바! _ 윤페니 선교사
- 23 첫번째 텐트메이커 청년 레이첼을 파송하며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코이노니아, 통일로 가는 길

조샘 대표

2020년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2018년 3월, 인터서브코리아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사 정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미래의 선교를 의논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논의했던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미지 한 컷을 나눕니다. “2020년에 인터서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삼십여 명의 선교사들은 각자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어 벽면에 붙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글씨는 많이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때 가장 큰 단어는 “공동체성”이었습니다. 선교사들, 프렌즈들, 스태프들이 좀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친밀함을 가장 원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2020년에 30주년이 될 인터서브 코리아를 축하 기념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키워드를 연결하면,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2020년에 다같이 모여서 30주년을 회고하자는 것이 아닐까요?

2020년 인터서브의 모습?

다음세대/영성/선교의 본질

재정나누기

공동체성 (파트너, 프렌즈)

30주년 대회

한국 교회를 돕는 ISK

본부 인력 내실화

한국에서의 선교

ISK의
국제
인터서브에서의 공헌

다른 키워드도 주목할만합니다. “한국교회를 돕는 인터서브 코리아,” “한국에서의 선교” 입니다. 한국 사회는 다가올 통일을 준비해야 하며, 통일 전후로 전개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교회가 복음으로 공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적 선교로는 건강한 답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와 삶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총체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은 어쩌면 인터서브가 그동안 경험한 총체적 선교가 한국 교회의 건강한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 난민이나 BAM, 전방개척 등이 키워드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돕는 것과 한국에서의 선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현장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3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에 관한 본부 스태프들과 필드 선교사, 이사들 사이에 왕성한 의논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30주년을 준비하는 세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결정되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할 한국 교회와 우리의 총체적 선교 경험을 나눈다”

선지자 대천덕

저는 요즘 밤 기도 시간에 대천덕 신부의 “통일을 위한 코이노니아”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 신부님께서 90년대 쓰셨던 다양한 글과 강연 가운데 통일에 대해서 적은 글들의 묶음입니다.

대신부님은 통일을 위해서 당시 남한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93년도에 통일논단에 기고한 “통일 한국을 위한 영적 전체

조건”에서 신부님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 한국 교회의 분열이 사라지고 한마음이 되도록.
- 탐욕을 버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길, 특별히 경제적 정의를 말했습니다.
- 비기독교인들에게 겸손한 태도가 되길
- 코이노니아를 이해하고 실천하길

하나하나가 귀한 통찰이지만, 마지막에 적힌 코이노니아는 주목할만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어려운 짐을 함께 지고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적 공동체로 서는 것. 왜 이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통일로 가는 길일까요?** 다음은 대 신부님 말씀의 인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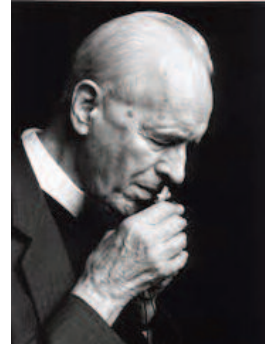
“북한의 전체주의와 남한의 무책임한 개인주의를 연결해 줄 중간 지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 현상입니다. (중략) 우리는 현실적인 짐이든 심리적 짐이든 아니면 영적인 짐이든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남한의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실제로 행하게 되면, 북한 ‘공산주의’의 진짜 근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산주의는 사실 이 코이노니아를 본뜬 조작한 가짜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p. 27)”

코이노니아, 어떻게 시작할까?

국제 총재 비쥬이 코쉬는 취임 이후 늘 공동체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2022년 까지의 국제 우선순위 가운데는 공동체적 선교학 Communal Missiology에 대한 이해가 자라나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비쥬이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성은 얼마나 공허한 것일까요?” 이는 자라나는 남미, 인도, 중국에서의 어려운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염두에 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재정 나눔이 공동체성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빠진 공동체성이 공허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인터서브 코리아 내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나라들의 선교사들이 필드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찌 재정뿐일까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짐을 함께 지고 나감에서도 성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찌 선교사들뿐일까요?** 한국 땅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이사들, 후원자들, 프랜즈들, 스탭들 역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조선말 복음이 들어온 이후, 한국 교회는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



는 일을 잘 감당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인터서브 공동체 역시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계급으로 다가올 북한 사람들과 다문화 사회 속의 다양한 소수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전보다 한 단계 높은 코이노니아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국 사회의 변혁에 참여함은 이 시대 선교의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를 돕겠다는 인터서브의 열망은 귀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던 바나바의 헌신,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민족과 언어가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모으고 증보했던 고린도와 빌립보 교인들의 코이노니아! 이런 레디컬함이 초대교회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웠음을 기억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낯선 한국 땅에 찾아와 새로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실험하고 실제 살아냄으로 한국 교회에 메시지가 되신 대천덕 신부님의 삶. 그분의 비밀은 무엇이였을까요? 대천덕 신부님의 다음 부탁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를 이룰 때 우리는 북한 동포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p. 27).



■ 선교적 교회 컬럼

교회의 변화가 필요한가?

한사랑 교회 미셔널 처치 저니 프로젝트



첫 만남

삼 년 전, 한 모임에서 선교적 교회에 관심이 많은 신 목사님을 소개를 받아 서울 목동의 한사랑 교회를 방문했다. 황성수 담임 목사님을 만나 선교적 교회와 인터서브의 교회관계사역에 관해 설명하며 좋은 만남을 가졌다.

삼 년 후, 선교적 교회 컨설팅을 의뢰 받고 다시 교회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장로님들과 선교 담당 목사, 기획 담당 목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렇게 한사랑 교회의 선교적 교회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여정을 위한 예열 豫熱

올 초, 한사랑 교회와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주일 예배에 조셉 대표가 설교하고, 오후에는 송기태 선교사가 MC로, 황성수 목사와 조셉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는 '미션 앤 토크'를 진행하였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선교를 주제로 한 토크 쇼에 이백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변화의 시작: 준비위원회

한사랑 교회의 '미셔널 처치 저니 Missional Church Journey 프로젝트'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으로는 담임 목사, 선교 담당 목사, 기획 담당 목사, 그리고 해외, 국내, 지역 사회 선교부 장로님, 그리고 송기태 선교사가 참여했다. 그동안 선교 담당인 김정기 목사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이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선교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였다. 교회의 코디네이터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또한 선교사십을 위하여 컨설턴트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역 접근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첫 모임은 매우 어색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생각과 장로님 세 분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질문하면서 점차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몇 달의 작업을 거쳐 드디어 '한사랑 미셔널 저니'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앞으로 삼 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여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회의 변화가 필요한가?

이 프로젝트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장로님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와 목회자 모임이 핵심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미셔널 저니 프로젝트'에 대한 세미나를 각 그룹 당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그룹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첫 모임에서 '교회의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교적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존재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장로님들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을까? 장로님들과 나누는 교회의 변화에 대한 주제는 매우 심도 있고, 또 그만큼 부담이 큰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변화를 갈망하지 않으면 선교적 교회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변화에 대한 주제가 이번 여정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목회자 그룹에게도 중요한 주제다. 장로 그룹이 교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면, 목회자 그룹은 교회의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다. 성도를 가르치고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부사역자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도 중요한 요소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사역자들의 교회 사역에 대한 정체성은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선교적 여정 중 하나다.

소그룹이 가진 선교적 잠재력

미셔널 저니 준비 팀에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런칭 시기와 맞물려, 교회 소그룹 모임인 '숲 모임' 리더들의 모임인 '어울림 예배'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에 프로젝트를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상황적 필요로 인해 12주 모임이 기획되었다. 지역 교회의 선교적 교회 여정에서 소그룹 모임은 대그룹 모임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그룹 모임의 선교적 건강성이 대그룹 모임에 반영된다. 소그룹은 선교적 교회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지닌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숲 모임'은 성도들의 삶의 실체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이기 때문이다. '숲 모임' 리더들의 가을 학기는 어쩌면 선교적 여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일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3년 간의 선교적 동행

한사랑 교회의 '미셔널 처치 저니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3년을 한 팀으로 제안했다. 3년 정도면 결과를 가시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를 향한 첫 삼년의 여정이 교회 가운데 기초적인 선교적 문화 *missional culture* 가 배양되기를 소망합니다. 를 배양하기를 소망한다.

선교적 교회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룹들에 대한 선교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화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도 같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께서 첫 3년 간의 여정을 통하여 한사랑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문화를 반영하는 선교적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프렌즈를 만나다

프렌즈는
인터서브 공동체의 또 하나의 축입니다.
매일 평범한 삶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서브 프렌즈입니다.

홍영기 프렌즈 (인터서브 멤버케어팀)



Q. 믿음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궁금 합니다.

»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중,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새벽 마다 기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어머니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의 권유로 오래 전부터 교회에 가셨고, 할머니는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후 대학에 가서는 신앙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지내다가 결혼 전 저희 장모님의 결혼 조건으로 세례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다시 교회로 나가 새로운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선교에는 처음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 교회 다니면서도 선교에 대한 관심은 그리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퇴를 1년 앞둔 시기에 제가 다니는 남서울은혜교회에서 은퇴자를 위한 자비량 선교 훈련 과정(BMR)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1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훈련을 마친 졸업생들의 모임(평신도후반기사역자)에 회장을 하면서 여러 선교 단체,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사역들을 졸업생 모임

에 소개하면서 더욱 더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지경이 확대되었습니다.

Q. 인터서브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남서울은혜교회의 은퇴자를 위한 자비량 선교 훈련(BMR)을 마치고 사역 장소를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던 중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합신 선교부(PMS)에서 선교사 부모 케어 사역자를 모집한다고 하여 그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2년간 부모 케어 사역을 하던 중, 그 곳에서 합신 출신인 신 김기학 부대표를 알게 되었고 인터서브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Q. 인터서브에서 현재 하고 계신 일은?

» 선교사 부모 케어 사역입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 까지 약 6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사 부모 케어 팀은 남서울은혜교회의 권사, 집사님들 주축으로 16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1회 모임과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시 선교사님들,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아 건강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

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양로원, 요양병원을 입원하고 계신 부모님들을 방문하여 위로의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봉사자 1명이 10여명 정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여 부모님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즈음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여 부모님들을 위로 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Q. 멤버 케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지요?

»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보람되고 감사한 기억입니다. 2013년도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저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110여 가정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고 양로원, 요양병원 방문하여 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께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받으시더라도 혹시 이상한 사람이 전화한 것이 아닌지 의심의 마음으로 받으셨는데 지금은 저희 목소리를 알아들으시고 반가운 마음으로 받으실 때 보람과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15명이 한 팀이 되어 사역을 하게 되니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고 보람도 커져 감사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기억입니다. 선교사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저와 그 동안 교제하면서 어머니의 신앙 간증도 듣고 제 신앙도 되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CGN TV 에 인터뷰 일정까지 잡아 놓았는데 갑자기 소천 하신 것입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기억입니다.

Q 부모님 케어 사역의 앞으로 방향성과 계획은? 참여 방법은?

» 사역의 방향성은 인터서브의 핵심 가치의 하나인 종 된 섬김인데 이것을 위해 더욱 경제적으로 건강

적으로 어려운 부모님들을 찾아 갈 것입니다. 작은 힘이나마 그분들을 위로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 봉사자와 부모님이 1:1 결연을 통해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사역에 참여 방법은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누구라도, 언제라도 저에게, 또는 인터서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Q. 선교적 삶을 살아 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서브의 핵심 가치인 낮은 곳으로 가면서 더욱 내려놓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 언젠가는 저도 현재의 부모님과 같은 연령이 되는데 지금 보다 더욱 더 선교적 삶을 계속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Q. 선교적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기 프렌즈와 생생하게 만나고 싶으신 분은 인터서브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인터서브코리아 30주년 특별기획

최초의 한국인 BMMF 선교사, 전재옥

한국에 인터서브 본부 세워지기 30년도 전인 1961년, 인터서브의 전신이었던 BMMF 소속으로 파송된 한국 최초의 해외파견 여성 선교사가 있다. 고 전재옥(2016년 4월, 78세로 소천)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이화여대 선교부와 한국감리교회 통해 파키스탄으로 파견되어 1973년까지 무슬림 여성 사역과 교사 사역을 했다.



그는 한국 교계와 선교계에서 굵직한 발자국을 남겼던 신학자이자 유명한 선교 지도자였다.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 한 후, 1977년부터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다. 또한 세계복음연맹(WEA) 선교위원회 국제총무와 중앙위원을 비롯해 이화여대 다락방전도협회 사무총장, 한국이슬람연구소장,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그가 인터서브 DNA를 가장 먼저 체득하고 실천했던 최초의 한국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인터서브의 핵심 가치와 DNA를 그대로 실천할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첫번째 그는 아시아의 가장 소외당하고 힘든 환경

에 있는 자들을 위해 일했다. 그는 파키스탄에 있는 동안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 사역했다.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피곳 여자고등학교와 카라치의 여성성경훈련센터, 구즈란왈라의 UBTC 신학교 등 그가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사역했던 곳이다.

두 번째로 혼자 단독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그곳에 있는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 대학생 선교단체 등에 소속되어 사역했다. 현지 교회와 단체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세워주는 인터서브 DNA를 엿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여성 싱글 선교사로서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싱글 여성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1960년대 한국 사회와 교회의 분위기에선 다소 생소한 발걸음이었다. 여성 선교사에 관한 관심과 공헌은 그가 한국 교계와 선교계에 미친 이슬람 선교에 대한 공헌만큼이나 중요하다. 최초 100년 간 여성 선교회로 유지되었던 인터서브의 여성 존중의 전통을 첫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 전문적인 사역자였다는 점이다. 전재옥

은 이화여대에서 영문학과 신학을 배워서 파키스탄 여성들에게 영어와 우르두어를 통해 성경과 여타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 인터서브가 추구하는 전문인 선교의 전통적인 모델 중 하나인 교사의 신분으로서 그의 존재를 평가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겸손한 사역자였다. 인터서브 DNA 중 중요한 자기비움과 낮아짐의 영성을 전재옥의 삶 전체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지행일치’와 ‘사막의 신학’, ‘화해의 선교’, ‘사랑의 선교’ 라는 말로 대변되는 전재옥의 삶과 선교관은 그의 영성을 대변하는 표현들이다. 선교 초기 그의 보고서를 보면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그 상황을 겸손하게 극복해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저는 가끔 여기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주님의 식구들과 때로는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종차별, 언어문제, 대화의 곤란 등 여기서 매일 만나는 어려움은 저를 주님께 더 의지하게 합니다.”¹⁾ 파키스탄 사막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일생동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단순한 삶과 이슬람 선교에 헌신하게 된다. 그는 파키스탄에서의 삶을 평가하며 이렇게 간증했다. “파키스탄의 사막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막에서 선인장 꽃이 피고, 오아시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 방울의 이슬들이 모여서 사막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능력이 파키스탄 1억의 무슬림을 회심시키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작은 이슬의 생명력을 되새겼습니다.”²⁾

그런 영향에서인지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파송한 1, 2호 선교사 부부가 모두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파키스탄 선교는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1992년 <한국이슬람연구소>를 설립했을 때부터 인터서브가 자립할 때까지 이슬람 연구소와 인터서브코리아는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력 사역을 이어갔다. 초기 인터서브 코리아의 DNA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쳤던 전재옥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3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전진해 가야 할 지 배우게 된다. 卍

◎ 인터서브코리아는 2020년 30주년을 맞이합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터서브코리아를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1) <빛과 소망의 숨결을 찾아: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 교회 70년사 (1935년-2005년)>, (공)저 양혜원, 199쪽 재인용.
2)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13>

☐ 미션얼 Family

김재민, 조혜정

선교사 가정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서브에 합류하게 된 김재민, 조혜정 가정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저의 직업은 음향엔지니어입니다. 조혜정 자매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고, 현재는 10개월 된 아들 아론이의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현재 이란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사역은 BAM이며 제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말에 캔디데이트 스쿨을 마치고,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앞으로의 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타문화 적응 훈련을 시작으로 타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인터서브로 인도하시고 인터서브에 많은 분들과 또 다른 가족이 되게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저희 가정의 일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신홍, 이연수

선교사 가정

안녕하세요. 김신홍, 이연수, 시연 시하 가정입니다. 저희는 2019년 8월에 인터서브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둘째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이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삶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제이든, 송울

선교사 가정

살롬! 제이든, 송울, 이삭 패밀리입니다. 객관적 분석을 좋아하지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제이든,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 송울, 자동차와 타요를 좋아하는 이삭은 인터서브에 함께 하게 된 것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2004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선교의 비전을 품었고, 비전트립과 선교한국을 통하여 부르심을 확인하며, 제이든과 송울은 각자의 모양대로 다르게 선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15년동안 선교를 준비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가정을 환영해주는 인터서브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2017년 4월부터 제이든이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있는 한 대학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저희 가정은 중동 문화와 이슬람을 배우고 있습니다. Life as Mission 을 통하여 그 곳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卍

허종규

선교사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터서브의 가족이 된 허종규 선교사입니다. 저는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이셨던 정마태 선생님을 통해 인터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총체적 사역 철학과 선교사 멤버 케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우면서 마음에 큰 공감이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리엔테이션, 켄디데이트스쿨 등의 과정 지나며 제가 경험하는 바는 인터서브가 과연 듣던 대로 좋은 상호 섬김 (inter serving) 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 섬기던 교회로부터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기로 하고, 올해 GMTC 훈련과 인터서브 허입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지식은 이것입니다. 선교는 약한 자들을 향한, 약한 자들에 의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야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고후 12:9) 바울처럼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인터서브의 가족이 되어 행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선교에 참여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卍



미션얼 Family

박종성, 장소현

선교사 가정

안녕하세요. 새롭게 선교사로 함께하게 된 박종성, 장소현입니다. 저희는 인터서브가 올해 사역을 시작한 일본으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일본에 있었던 저희 가정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인터서브를 사용하시고 저희가정과 함께 하실 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된 인터서브의 가치와 목적은 긴 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기 위해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Life as mission”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을 녹여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일본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본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공감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을 기다리며 이미 움직이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동자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최근의 한일의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자아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다른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섬김의 모습과 모양이 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와 프렌즈여러분께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힌두 세미나



이 성음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푸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음에 베푸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렘 33:9

나마스떼 नमस्ते

힌두 문화와 세계관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일 시 | 2019년 10월 10일 저녁 7시

장 소 | 오륜교회 교육관 4층

강 사 | 최조나단 선교사(WEC 인도 선교사)

주 관 | 예수전도단, 인터서브

문 의 | 이나래 매니저(인터서브) promotion.isk@gmail.com

노정현 목사(예수전도단) 010-9131-8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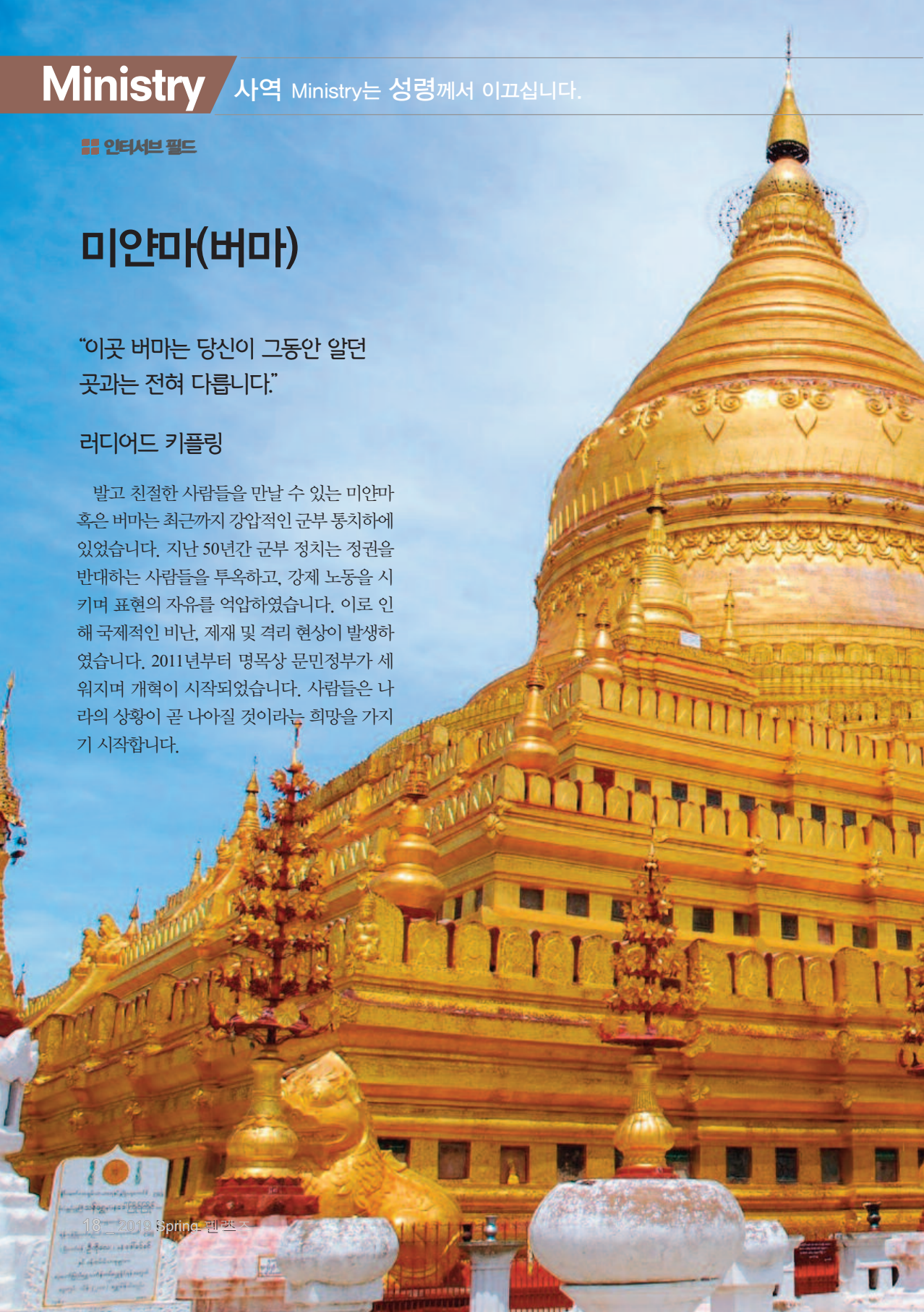
인터서브 필드

미얀마(버마)

“이곳 버마는 당신이 그동안 알던
곳과는 전혀 다릅니다.”

러디어드 키플링

밭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미얀마
혹은 버마는 최근까지 강압적인 군부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지난 50년간 군부 정치는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강제 노동을 시
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습니다. 이로 인
해 국제적인 비난, 제재 및 격리 현상이 발생하
였습니다. 2011년부터 명목상 문민정부가 세
워지며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
라의 상황이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
기 시작합니다.



미얀마는 티크 나무숲과 농업을 위한 비옥한 토양, 질 좋은 보석과 광물 및 해양석유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종적으로 미얀마는 8개의 주요 민족과 공식적으로 135개의 소수그룹이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1948년 독립 이후 대부분의 버마 사람들과 카렌족, 산족, 라카인족, 몽족, 로힝아족, 친족, 카친족과 같은 소수민족 사이에 많은 민족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난민이 태국으로 갔으며 난민촌(IDP)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몇 번의 휴전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정부와 16개의 반란군 사이에 휴전협정 초안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수 민족인 버마인들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양곤에는 금색 지붕의 탑이 즐비하고 승려들은 매우 존경을 받습니다. 버마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년 전에 첫 선교사가 전도를 시작했으며, 소수민족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의 수는 약 7%입니다.

일부 교회는 민족 간 격차를 해소하고 불신, 분열, 증오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서브는 미얀마에서 지역 교회와 협력하고 소외계층과 협력하여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얀마 팀은 비교적 최근에 구성된 팀이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서브 선교사들은 주로 양곤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버마는 온트랙에게 새롭게 열린 기회입니다. 인터서브 팀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하고 싶고, 관심이 생긴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현재 단기간 영어를 가르치며 섬길 주요 자리가 있습니다! 🇇🇲

번역: 이채미 프랜즈

인터서브는 온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1개월~2년 동안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얀마 지역과 온트랙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31-778-7932, ontrack.isk@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 파트너 스토리

밍글라바!

(미얀마어-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5월말 미얀마에 입국하여 6년째 양곤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펜니 선교사입니다. 황금의 나라 미얀마 연방공화국은 135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약 5,500만명입니다.

Myanmar



이 중에 68%가 버마족이며 전체 국민의 90%가 불교도인 불교 성지 국가입니다. 남한의 6.7배나 되는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국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약 62년간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 후 일본 식민지를 거쳐 독립한 후 오랜 시간 군부통치(사회주의)체제였다가 2016년 아웅산 수치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는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가 사는 양곤은 도시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NGO가 생기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로힝야 사태 등 인권문제와 종족간의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MRPST 신학교의 신학과와 유아교육과의 영어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MRPST Myanmar Reformed Presbyterian School of Theology 는 2007년 12월 한국인 선교사들의 연합(한국 기독교 교단 연합)으로 양곤시 명글라돈 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MRPST 는 미얀마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미얀마 교육제도인 10학년 졸업 시험(대학입학시험)을 합격한 재원들 중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버마족, 몬족, 야가인족, 산족 등)을 주 타깃으로 삼아 선발하는 4년제 신학교입니다. 2019년 1월까지 MRPST는 8회의 졸업식을 통해 4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43개의 교회에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23 선교사 가정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한 팀으로 연합되어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파송교회인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시스템이 2015년부터 시작되어 제자/사역훈련을 마친 사역자들이 올해는 9개의 교회에서 40명의 평신도를 제자훈련하며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는 등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으며,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자훈련 사역을 섬기며 성령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하나님께서 저희 신학교 사역에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올 초에 저의 멘토이며 사랑하는 언니인 도서출판 토기장이 조대표님이 저의 미얀마 사역을 보러 오셨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과 대화 중에 한 교수님이 갑자기 “대표님 저희 학교에 영어원서 3,000권을 기증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상



의도 없던 일이라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안마로 책 3천 권을 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너무도 잘 아는 터라 개인적으로 친한 언니지만 차마 부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제안에 언니도 아무 주저함 없이 흔쾌히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모두의 마음을 여신 것이었음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영어원서 8천 권이 준비되는 것은 저희 신학교의 목표 사업인 <장래 현 지인 이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가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언니는 '미안마 3천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기도하며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미안마 현지에서 신학교 교수님들도 뜨겁게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3천 프로젝트를 채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호주,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자부담으로 보낸 책들이 속속히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맛보는 놀랍고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운행하시니 책이 들어오는 운송 과정에서 단 한 건도 세관이나 기타 어려움 없이 잘 도착하는 기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기존에 있던 책과 더불어 5천여 권이 필요했지만 애당초 목표치 보다 2,000여권이 넘는 7,555권으로 7월에 감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오랫동안 동역해 온 미국 틴테일 출판사에서 모은 1천여 권은 감사함으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미안마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 6개월 안에 이 사역이 완결되기를 기도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6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나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그저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저는 2018년 안식년에 3개월간 120시간의 집중강의를 들으며 어린이 TESOL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9월 28일부터 MRPC교단에 있는 20개의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Light & Salt 파닉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는 유치원



교사들에게 영어 교육법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파닉스 교육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많은 중보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신학교 유아교육과 1기를 졸업하고 유치원 원장을 지낸 테테모에와 함께 현지 유치원 선생님들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 교육하여 10개월 후에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려 합니다.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파닉스 교육법 프로그램이며 전공자도 아닌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테테모에와 함께 동역하며 유익하고도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파닉스 교육법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가르칠 영어 대화와 영어노래, 게임, 만들기 클래스를 주요 커리큘럼에 담습니다. 주중에 유치원에서 일하고 토요일에 긴 시간 집중하여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20여 명의 유치원 교사들에게 자원하여 배우고 피곤치 않으며,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더욱 집중 중보 부탁드립니다. 테테모에와의 협력사역에 기쁨 부어 주시고 향후에 그녀를 중심으로 이 사역이 확장되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2014년 미얀마 인구 조사에 따르면 0-14세의 어린이가 전체 인구의 29%로 추산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시골의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고 도시에 있어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부처에게 바칠 꽃이나 생수를 파는 많은 아이들을 보며 그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어 이 나라에 복음이 충만해지길 날마다 기도합니다. 卐



Myanmar



▣ 인터서브 전략사업

다음 세대 텐트메이커

첫번째 텐트메이커 청년 레이첼을 파송하며



이십대의 싱글 청년을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예배는 놀라운 일이었다. 울산에서는 꽤 큰 규모인 수천 명이 모이는 장로교회는 다음세대 텐트메이커 프로젝트로 선발된 첫번째 청년이 청소년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모 교회이다. 성인이 되어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서울의 한 교회를 줄곧 섬겼기에 어쩌면 그 관계가 소원해져 있을 법도 하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회는 자신들의 교회에서 자란 아직은 미숙한 이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파송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파송예배는 오후예배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로 변경되었다. 청년 선교 주일로 정하여 모든 청년들과 전 교인이

레이첼의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다. 토요일 청년부 예배 때는 다덴 프로젝트 담당자인 비제이 선교사가 선교 특강을 했고, 주일 11시 파송 예배와 오후 선교헌신예배는 인터서브 대표 조셉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였다. 파송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청년 선교사를 마음껏 축복하고 파송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한 명의 청년이 선교사가 되어가는 그 여정을 함께 하기로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포했다.

한국 선교사들의 평균 첫 파송 연령이 40대 중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도 굳건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인맥이 부족한 20대 중반을 갓 넘긴 청년들이 후원을 일으키고 파송 교회를 찾아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교회도 개인들도 그들을 파송하고, 후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에 인터서브에 주어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는 사명을 위해 시작한 다음세대 텐트메이커 프로젝트가 첫번째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가을, 중동 한 나라에 가서 3년간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대학원 공부를 한다. 3년이 지나면 인터서브의 정식 텐트메이커 선교사가 될 예정이다. 하나님은 이 어린 선교사를 어떻게 다듬고 만들어 가실까? 인터서브와 파송교회, 중동의 컨트리 팀이 힘을 모아 이 청년들을 섬기며, 이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

또 한 명의 청년과 인터뷰를 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더 어린 청년이다.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누구나 선교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균형 잡힌 선교 교육을 받은 친구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되길 바라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혼재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 세대 모든 청년들의 모습이다. 선교를 선택한 자기들의 동기가 혹시라도 순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마음 속 깊은 죄책감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건강하고 헌신되고 굳건한 가치 위에 바로 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인터서브가 무언가를 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미셔널 BOOK



어쩌다 한국인 : 대한민국 사춘기 심리학

허태균 저
중앙일보 플러스, 2015

저자 허태균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심리학의 사조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찾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선교사로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첫째는 선교의 대상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한국인으로서 나에게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고 유연하게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선교는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identification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체성의 이해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가 움직여 가는 동선과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해는 국내 자문화권에서의 선교적 활동들에 대한 상황화에 도움이 되며, 동일하게 타문화권에서의 선교적 활동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저자는 한국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집단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른 질문인 "대한민국은 몇 살일까?" 하는 질문으로 서두를 연다. 흔히 한민족의 역사를 단기 4350년으로 부르고, 서기 2019년으로 부르지만, 현재의 한국인들의 정체성은 한국 전쟁 이후로 새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심리는 극심한 진통을 겪으며 한국 전쟁 때 다시 탄생되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한국인의 집단적 심리를 여섯 가지 심리학적 틀을 사용해 분석한다. 자칫 한국 사회의 복잡한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정체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염려

도 있다. 그러나 저자가 한국 사회에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들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분석은 매우 훌륭한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선교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와 사회 문화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인간들의 사회 안에 투영되어서 인간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핵심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과정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시는 과정을 이어왔다고 여겨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의 역사와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으며, 민족들의 특성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 글로컬 Global이란 용어에서도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면서, 동시에 행동은 로컬local하게 해야 한다. 이런 사고와 사역들을 펼쳐 나가는데 이 책이 우리 자신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타민족들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중요한 모티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송기태 파트너 (인터사브 부대표, 교회 관계)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33호
2019 FALL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19년 가을호 통권 133호

발행인 조섬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19. 9. 3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2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